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AGED
가제 : 우리에 갇힌 소녀
저자 : Ellison Coop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패트리샤 콘웰*(Patricia Cornwell)*, 캐시 라이크스*(Kathy Reichs)*, 테스 게리슨*(Tess Gerritsen)*에 비견되는 데뷔 작가**
*** 작가가 실제 살인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완성한 범죄 스릴러 시리즈**
***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살인마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주목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박사 학위 소지자도 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FBI에서도 몇 명 되지 않는 신경학자인 세이어가 연쇄살인범의 뇌 스캔 도중에 다급히 불려간 현장은 여러모로 기괴했다. 이미 두 명의 경찰관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갑자기 터진 폭발물에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이어는 한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심리분석 전문가가 살인 용의자의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세이어는 뇌에서 감지되는 활성, 비활성 신호를 토대로 심리와 감정 상태를 유추하는 전문가였다. 그녀를 살인 현장에 불러낸 건, 이번 사건이 그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사건 통솔까지 맞기면서 와서 확인해보라는 상관의 말에, 세이어는 악취 신고가 들어왔다는 주택가로 향했다.

영문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가 다친 두 경찰관은 집 앞에서 일주일쯤 전, 이상한 신고를 받고 순찰을 돌았던 곳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직 앳된 목소리의 여자가 911에 전화를 걸어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발신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었다. 당시 두 경찰관은 이 근처까지 왔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해 돌아갔고, 누가 약에 취해서 잘못 건 신고전화겠거니 생각했다. 그것이 엄청난 비극의 서막이었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그 집은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현관을 열고 들어선 집 안에는 구역질이 절로 나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직감적으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임을 알아챈 두 사람은 냄새가 한층 강렬하게 흘러 나오는 주방 쪽으로 총을 겨눈 채 다가섰다. 부엌 쪽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그 아래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손에 총이 있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고 두 사람이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사이, 누군가가 준비해둔 폭탄이 터지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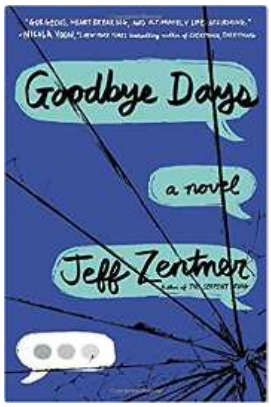
세이어는 폭탄이 모두 제거된 현장에서 조심스레 그 계단을 내려갔다. 한 구석에 설치된 철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살인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신 나간 범죄 광을 하도 많이 만나 어지간한 사건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 그녀도 이번만은 느낌이 영 좋지 않았다. 철창은 유럽 어딘가 고대 고문시설을 전시해놓은 곳에 놓여 있을 법한 아주 독특하고 섬뜩한 형태였다. 발견된 희생자는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여성으로, 사인은 최대 일주일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탈수 증세로 서서히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 옆에서는 천진난만하게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도 발견됐다. 죽은 여성의 팔에는 물어 뜯긴 자국이 많았는데, 강아지가 문 자국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누가, 대체 왜 사람을 우리에 가두고 굶겨 죽였을까? 며칠 전 구조 전화를 건 여자의 목소리는 죽은 희생자였을까? 세이어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살인마의 정신 상태를 파헤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던 중, 뜻밖에도 죽은 여성이 상원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나라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서둘러 해결해야만 하는 압박감이 날로 거세지던 어느 날, 또 한 명의 소녀가 사라진다. 정황상 같은 범인의 짓으로 판단한 세이어는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살인자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간다. 그러나 세이어는 그가 위험천만한 집착을 가진 자이며,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채기 시작한다.

약혼자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후 연쇄살인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조사관이 된 세이어 알테어를 주인공으로 한 짜릿한 범죄 스릴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2권과 3권에서도 기괴한 살인사건과 그 뒤를 쫓는 세이어의 활약이 펼쳐진다.

<저자 소개>

엘리슨 쿠퍼(Ellison Cooper)는 고고학, 문화신경학, 고대 종교, 식민지주의, 인권 분야를 공부하고 UCLA에서 인류학 박사를 취득했다.「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에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옥스포드, 스탠포드 대학교 등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부한 뒤 워싱턴 D.C에서 살인사건 조사관으로 일했다. 『Interzone』, 『Daily Science Fiction』 등에 단편소설을 게재했다.

제목 : GOODBYE DAYS
가제 : 작별하는 날
저자 : Jeff Zentner
출판사: C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3월 7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YA 성장, 가족 소설



*** 영국,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사건, 그 속에서 일어난 인종 갈등과 추락한 명성, 깨져버린 가족의 삶에 배인 슬픔, 아무것도 위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지혜가 가득한 소설. 지혜와 감동, 현실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섬세하고 세밀한 이야기" – 「커커스 리뷰」**

가족도 소중하지만,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만큼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들도 없을 것이다. 그런 친구들을 만난 행운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처참히 깨져버린다면, 심지어 그 믿기 힘든 사고를 자신이 일으켰다는 죄책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면,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16년을 대표하는 YA 소설로 극찬을 받은『The Serpent King』의 작가가 비극적인 사고로 하루 아침에 소중한 친구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열일곱 살 주인공 카버와 사고 이후 벌어진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동적으로 그린 특별한 소설을 완성했다. 친구들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카버의 죄책감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가족들의 치유를 향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섬세하고 따뜻하게,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너네 어딘데?" 그게 마지막 문자메시지였다. 마스, 블레이크, 엘리, 세 사람은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고 카버는 운전 중이던 마스에게 그 문자를 보냈다. 답장을 보내느라 마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정차해 있던 트럭에 차는 그대로 부딪혀버렸고 셋 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항상 붙어 다니면서 한 팀으로, 한 형제처럼 살았던 세 친구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카버는 처참히 구겨진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의 전화기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답장이 반쯤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남은 고등학교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을 친구들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다. 대형 사고에 충격을 받은 온 마을이 카버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점점 험악해졌다.

블레이크의 쌍둥이 여동생이 그 서막을 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카버가 오빠를 죽인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카버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경멸과 비난, 역겨움이 가득 담긴 것만 같았다. 게다가 유명한 판사이자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진 마스의 아버지가 지역 법원에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카버는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테네시 주의 법률상, 카버는 마스가 운전 중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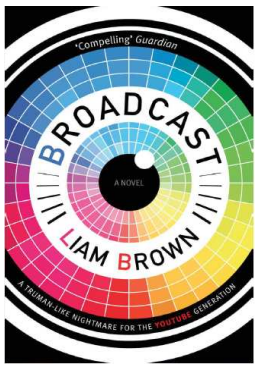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문자를 보내면 상대가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살해 동기는 없을지언정 "형사상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스 아버지의 주장이었다. 궁지에 몰려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괴로움에 결국 공황 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카버에게 다행스럽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엘리의 여자친구 재스민이 모두가 카버를 노려보기만 하는 학교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서서 카버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안을 얻는다. 공황 장애로 찾아간 심리치료사도 흥미로운 전략을 제안하며 카버가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를 이 무거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블레이크를 태어날 때부터 키운 나나 할머니도 카버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며 보듬어 준다.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겨우 하루하루 버티던 카버에게, 나나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한다. 아무 준비도 못한 상태로 블레이크를 떠나 보냈으니 정식으로 하루 날을 잡아서 블레이크가 좋아하던 일들을 함께 하면서 지난 추억을 실컷 나누고 제대로 작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급기야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카버에게 작별의 날을 함께하자고 요청하자 카버의 심경은 복잡해진다. 이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정말 순수하게 슬픔을 함께 이겨내고 싶은 걸까, 카버가 그 사고의 책임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걸까? 최악의 경우 그것을 카버를 감옥에 넣기 위한 단서로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친구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죄책감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까지 더해진 카버의 상황을 1인칭 시점에서 낱낱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우정과 소속감, 누구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개개인의 고통이 지닌 무게가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제프 젠트너(Jeff Zentner)는 작곡가 겸 가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글을 써왔다. 『The Serpent King』으로 작가로서의 재능을 널리 인정 받았다.

제목 : BROADCAST
가제 : 생방송
저자 : Liam Brown
출판사: Legend Press
발행일: 2017년 8월 1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집에서 담근 술처럼 중독성 있는 이야기" – 코스타 상 결선 진출 작가, 스티븐 메이**

*** *Luke Bitmead Bursary (2014), Bare Fiction Prize (2015), Grist Prize (2015)* 결선 진출, *Guardian Not the Booker(2015, 2016)* 후보에 오른 작가가 선보이는 흥미진진한 *SF* 소설**

영화 감독, 영상 제작자로 온라인에서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데이빗 캘로우에게 방송계 거물,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작자 크산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아무리 팬이 많아 봤자 크산에 비하면 먼지나 다름없는 자신에게 왜 관심을 보이는지, 데이빗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데이빗이 주력한 건 자신의 생각을 영상을 통해 사람들과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일이었다. 상업적인 방송국처럼 대본이나 철저한 기획 단계를 대부분 생략된 비디오 블로그, 일명 '브이로깅'이 그가 택한 소통 매체였고 데이빗의 영상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그의 소신 있는 의견이 글로 쓴 비평처럼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즐겨 찾는 이유였고, 거대 방송국에서도 뚫기 힘든 대상으로 여기는 14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도 사실이었다. 하루 평균 그가 만든 영상의 조회 수만 수십 만 건이 넘을 정도였다.

유명세답지 않은 소탈한 차림을 한 크산은 데이빗의 이런 이력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2년 내에 '브이로깅' 시장은 DVD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거라는 도발적인 예측부터 내놓았다. 지금은 수많은 팬들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과거 LP 판이나 CD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금세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해진 것처럼 대중의 관심이란 더 새롭고 편리한 것에 이끌리게 마련이라는 것이 크산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데이빗에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브이로깅 시장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던졌다. 지금껏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비디오가 모든 영상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상한 예언도 이어졌다. 어리둥절해진 데이빗에게, 크산은 사무실에 설치된 화면을 켜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화면 속에는 데이빗도 얼굴을 잘 아는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 곁에는 MRI 장비가 보였다.

크산이 화면 속 여성에게 오늘 아침식사로 뭘 먹었는지 말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고 하자, 화면에 서서히 빨간 사과 하나가 떠올랐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여태 한 번도 본적 없는 느낌의 묘한 이미지였다. 테두리는 선명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사과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독특한 그림이 떠오른 것이다. 게다가 크산의 다음 요청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단순한 물체가 아닌 영화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을 가만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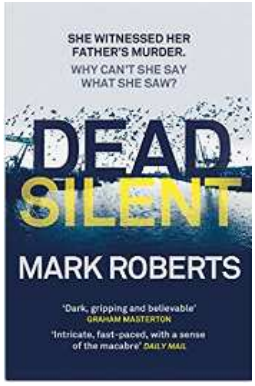
들여다보자, 누워 있는 여성이 어릴 적 엄마를 떠올렸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영상 속에서 기억 속 엄마가 하는 말, 목소리, 표정까지 그대로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크산은 데이빗에게 실시간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도 필요 없고 아무런 계획도 필요 없다. 그저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기술, 그렇게 떠오른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것이 크산의 아이디어였다. 데이빗이 추구해온 '생각의 공유'를 문자 그대로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마인드 캐스트'라 이름 붙여진 신개념 뇌 스캔 기술은 특수한 칩을 뇌에 이식하는 간단한 수술을 끝내면 데이빗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뇌의 활성 신호를 바탕으로 생각을 이미지로 변환한다. 한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 감정, 무심코 떠올린 기억과 의도적으로 찾아낸 기억이 모두 영상이 되고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플랫폼에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보내는 충격적인 생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 주저하던 데이빗은 결국 크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혁신적인 온라인 쇼의 주인공이 된다.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방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호응을 얻고, 데이빗은 하루아침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유명인사가 된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와 명성이 마법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 직후, 그는 이 거대한 인기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 역시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유명세의 덫에 갇혀버린 그가 망설이는 사이 상황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데이빗은 이식된 칩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심은 '마인드 캐스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들, 데이빗을 맨 처음 설득한 자들의 섬뜩한 탐욕과 야망, 비밀리에 준비된 계획을 드러내는 시발점이 되고 만다. 데이빗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컨텐츠, 바이럴 마케팅 방식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한 흥미진진한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암 브라운(Liam Brown)은 영화감독이자 작가, 밴드 기타리스트 겸 싱어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에 데뷔 소설 『Real Monsters』를 발표하고 이듬해 『Wild Life』를 발표했다. 두 소설 모두 「가디언(Guardian)」의 낫 부커 프라이즈(Not the Booker prize)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DEAD SILENT
가제 : 죽음과 침묵
저자 : Mark Roberts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6년 10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독일, 노르웨이, 체코, 슬로바키아 판권 계약 체결**

*** *1*권 『*Blood Mist*』에 이은 잔혹한 살해와 형사의 어두운 과거에 관한 스릴러 *3*부작 *2*권**

평생을 예술작품을 연구하며 살아온 80대 교수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한 집에 살던 딸이 유일한 목격자로 밝혀지지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그녀는 말문을 닫고 만다. 시신을 훼손하여 회화에 등장하는 장면을 재현한 광기 어린 살인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러 명으로 추정되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거대한 집단의 기막힌 음모가 드러난다. 불행한 과거를 딛고 가장 사악한 살인 범죄를 해결하는 유능한 형사로 활약하는 이브 클레이 경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범죄 스릴러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는 1권 『Blood Mist』에 이어 살인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활한 살인마와 그를 뒤쫓는 과정에서 클레이 경감의 덮여 있던 유년 시절 아픈 기억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중세 미술 전문가인 레오나드 로슨은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천장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신의 형태는 곧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뤼겔의 작품 속 어느 장면을 그대로 흉내 낸 것으로 밝혀지고, 클레이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은 이런 짓을 벌이려면 반드시 여러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로슨 교수의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만나봐도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학자이고 노인이었을 뿐, 누군가의 원한을 사거나 위험한 일에 가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보만 쌓여갔다. 아버지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딸, 루이스는 사건 당시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 깨어났지만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클레이 경감은 이것이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도저히 입을 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사이에서 여지를 남겨두기로 한다.

냉철하고 생각이 깊은 빌 헨드릭스 형사, 팀의 분위기메이커이자 뛰어난 직관력을 지닌 지나 라일리 형사를 비롯한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 수사를 이어가던 클레이 경감은 곧 정신이상자들이 모여 있는 어느 요양 시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애덤 밀러라는 남자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따뜻하고 환자들을 성심껏 돌보는 시설로 보이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와 함께 가브리엘 허더스필드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도 수사팀의 조사망에 걸려 든다. 평소 종교적 색채가 강한 묘한 내용의 연설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로슨 교수의 죽음과 관련된 중세 미술 작품에 이상하리만치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수사 팀은 브뤼겔의 <죽음의 승리> 외에도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바벨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로슨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바벨탑>이 살인이 일어난 날 감쪽같이 사라졌고, 교수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책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잠겨 있는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미출간된 원고도 분명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곧 두 건의 살인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대체 이 작품들이 살해 동기로 작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을 '최초의 탄생자'로 부르는 집단, '파괴의 천사'라 부르는 사람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이들이 '영국 실험'이라 부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편, 클레이 경감은 로슨 교수의 살해 배경을 쫓으면서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톨릭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서 그녀를 유독 아끼고 보호해주던 필로미나 수녀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모가 없어도 곧게 자랄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 남아 있지만, 어딘가 미처 드러나지 않은, 의식 저편에 숨어 있는 기억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스산한 바람이 차갑게 불어대는 12월, 리버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클레이 경감 역시 자신의 놀라운 기억과 서서히 마주한다. 무려 50년 동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던 메시지, 피로 쓴 메시지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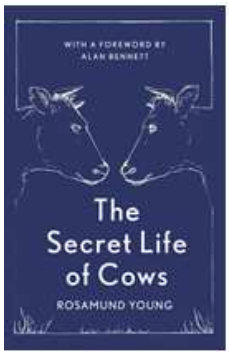
총 세 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이브 클레이 살인사건 시리즈의 세 번째는 일명 '로빈 후드 살인마'로 불리는 소아성애자의 범죄와 오래 전 클레이 경감을 구해준 어느 소년의 기억이 접점을 찾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마크 로버츠(Mark Roberts)는 세인트 프란시스 사비에르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20년간 교사로, 13년간 학습 장애 아동을 돕는 교육자로 일했다. 소설 『WHAT SHE SAW』로 CWA 골드 대거(CWA Gold Dagger) 상 후보에 올랐으며 『Blood Mist』는 호주 킨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NON- FICTION

제목 : THE SECRET LIFE OF COWS
가제 : 소의 은밀한 삶
저자 : Rosamund Young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자연(동물)/농업(축산)



***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터키 등 총 *16*개국 판권 계약 체결**

*** 『메이블 이야기*(H is for Hawk)*』, 『*The Shepherd's Life*』, 『*The Hidden Life of Trees*』에 비견되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감동적인 기록**

'뚱뚱한 모자'로 이름 붙여진 소는 여자보다 늘 남자를 더 좋아한다. '치피 민튼'은 진흙이 잔뜩 묻은 상태로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 깔끔한 성격이라,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겨 달라고 큰 소리로 불러댄다. 제이크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로운 매연을 몰래 들이키는 이상한 취미가 있다. 그리고 제미나는 철저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 농장 사람이든 외부인이든 찾아오면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댄다. 모두 저자가 곁에서 지켜보고 키우는 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유기농법'이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부터 당연한 의무라 여기고 가축을 키워온 저자는 이미 영국 최초의 유기 농장 운영자이자 직접 촬영하고 설명을 덧붙인 농장 풍경을 <농장의 은밀한 삶(Secret Life of the Farm)>이라는 제목의 비디오와 DVD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지금은 유기 농법을 채택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지만,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도 늘 동물의 삶을 생각하고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선사하며 말 그대로 '가족처럼' 동물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저자의 삶과 그 사랑 받는 동물들의 삶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다.

다 같은 소 울음소리처럼 들리지만 애정을 갖고 들으면 마치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알아채는 엄마처럼 소의 상태마다 울음소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소마다 개성 있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 소들도 무료할 때 같이 놀 게임을 떠올려서 재미 있게 논다는 것, 평생 절대 깨지지 않는 우정을 키우고 서로에게 기댄다는 사실, 친구가 아이를 낳으면 나서서 그 새끼를 돌봐준다는 사실, 그리고 소도 억울한 감정과 슬픈 감정을 느낀다는 흥미롭고 신기한 사실들은 동물이라곤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도시인들에게 놀라움과 자연의 따스함

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한다. 저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사는 소들과 양, 닭, 돼지는 모두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번식도, 식사 시간도, 집으로 삼을 장소도 모두 동물들이 알아서 정한다. 정해진 시간에 알을 낳거나 교배를 하는 일은 절대 없고 사람을 위주로 일정이 돌아가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억눌리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드러내는 개성 있는 성격과 취향은 자연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들의 놀라운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몸이 아플 때면 알아서 약용 식물을 찾아 뜯어 먹고 인간은 알지 못할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이라는 인간의 오만함과 더불어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현대화라는 산업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정부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53년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양심적으로, 동물들이 원래 타고난 특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키워온 저자의 남다른 애정과 현명함, 동물과의 교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유쾌한 농장 생활과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매력적인 책이다.

<목차>

머리말
기발한 재주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앨리스와 짐
제이크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조사는 필수
이름, 그리고 슬픔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양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소가 우는 소리는 다양하다
소는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다
소들의 우정에 대충은 없다
하지만 황소는 확실히 다르다
팻 햇 II
소도 취향이 있다
(이하 생략, 소제목 총 35개로 구성)

<저자 소개>

로사문드 영(Rosamund Young)은 1953년부터 영국 잉글랜드 우스터셔에서 '카이츠 네스트 팜(Kite's Nest Farm)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최초의 유기 축산 농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은 소, 닭 등 사육하는 모든 가축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주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산업적인 농법을 거부한다. 100% 초목을 먹고 큰 소와 양에서 얻은 고기를 농장에서 도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목 : NOTE TO SELF
가제 : 나에게 쓰는 글
저자 : Connor Franta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17년 4월 1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영국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가디언, 「이벤트 매거진*(Event Magazine)*」 베스트셀러 *6*위**
*** 아일랜드 「아이리쉬 타임스」 베스트셀러 *9*위, 「북셀러」 논픽션 부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560만 명을 넘어서는 인터넷 스타, 그에 못지 않은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스물네 살 청년 코너 프란타는 반듯하고 귀여운 외모와 소박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패션 센스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소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감각적인 사진, 그냥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풍경과 세상의 모습은 유쾌한 저자의 매력이 그대로 녹아 있다. 2015년에 발표한 회고록 『A Work in Progress』는 미국 중서부 지역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온라인에서 일약 스타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유머와 어린 나이에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정리하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첫 번째 회고록이 외적인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담은 기록이라면, 이 두 번째 회고록은 내적인 변화를 가감 없이 기록한 결과물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카메라나 영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 지극히 사적인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일기처럼 짧은 에세이로 남긴 이 책은 화려한 유명인의 삶, 성공한 기업가이자 매 순간 좋아하는 일에 뛰어드는 열정적인 청년의 모습 뒤에 가려진 혼자만의 고투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우울증,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 남들이 보는 자신과 저자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아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끈끈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갈증, 그리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그리 순탄치 않았던 사랑과 이별,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글로 전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건, 그저 평범한 사람이건 누구나 세상에 처음 홀로 나섰을 때 맞닥뜨리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분명 존재한다. 부모님이나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면과 냉정한 사람들, 굳은 결심도 자꾸 깨어지게 만드는 실패와 좌절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게 하고, 서서히 기존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만든다. 누구나 가슴 속에 실패와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아내는 떨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나약한 모습을 사회생활에 필수인 탄탄한 가면 속에 숨긴 채 사뭇 당당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간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범한 청년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이자 기업가가 된 저자는 누구보다 그 변화와 격차를 실감했고, 그 틈에서 무수한 혼란을 겪었다고 털어 놓는다.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이 주를 이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개인적인 삶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그것도 현명하게 잘 메우기 위한 저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가득하다. 자신을 남들과 다른 존재로 여기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구성원 중 하나로 보면서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자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글들은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기에 읽는 사람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내면을 들여다본 솔직한 기록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내면 탐구이기에 더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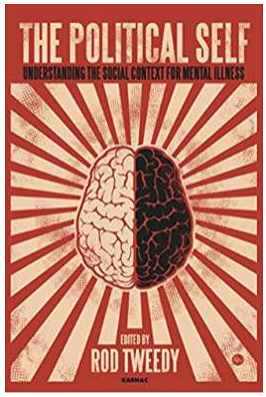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제 행복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좋은 곳에서 레몬 케이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
가장 아끼는 나의 과거
패턴
겁 없음과 두려움, 그 얇디 얇은 간격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
탐욕과 욕망
시작해보지도 않은 건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자리를 잘못 잡은 장기
드리워진 그림자
사랑에 빠졌던 그때
(이하 생략, 소제목 총 72개로 구성)

<저자 소개>

코너 프란타(Connor Franta)는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1992년생 유튜브 스타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팔로워 수가 전 세계에 수백만 명에 이른다. 2015년에 발표한 자서전 『A Work in Progress』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굿리즈 초이스 상(Goodreads Choice Award Winner)'을 수상했다. 생활용품 브랜드 '커먼 컬처(Common Culture)'를 설립하고 기업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POLITICAL SELF
가제 : 정치적인 뇌
저자(편집): Roderick Tweedy
출판사: Karnac Books
발행일: 2016년 12월 5일
분량 : 294 페이지
장르 : 심리학, 정신의학



*** "여러 유능한 저자들이 쓴 글을 통해 사회적, 정신적 질환을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책." –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바믹 *D.* 볼칸**

*** "최고의 분석가들, 학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병폐가 가득한 현 시대에 정신분석의 역할을 종합하고 분석한 성과를 멋지게 모아 놓은 책이다." – 영국 심리분석학회 소속 심리분석가, 『*Lectures on Violence*』의 저자 데이빗 모건**

과학 기술과 보다 세밀한 연구에 필요한 도구가 나날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인체에서도 가장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뇌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접근했다.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는지 그 원리와 과정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동시에,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했던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틀과 제도는 날이 갈수록 현 시대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예전에는 잘 들어 맞았던 원칙과 제도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추세다. 저자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결국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는 현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전자는 인간의 내적 세상에 대한 변화이고, 후자는 외적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변화를 하나로 종합하여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현 시대를 사는 인간의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통찰해야 현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현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크게 발전된 최신 신경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현실을 정신의학적 치료와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심리분석 분야의 새로운 흐름에서 나온 성과들을 하나로 정리한다. 즉 인간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서로 분리된 채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달리 실제로는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특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만 치중할 경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개개인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 모두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세상은 여러모로 발전하고 의학기술도 점점 향상되는데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그리 건강하지 못하다. 왜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

으려면 불안과 불행을 유발하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부터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신세계가 세상과 동떨어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모습이 갖추어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정치적' 세계라는 인식부터 자리를 잡아야 한다. 즉 달라진 세상에 개개인이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도록 방치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신과 외적 환경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아이디어와 힘, 흥미, 동력을 교류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저명한 정신분석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 두 가지 세계의 깊은 연관성을 다양한 주제로 정리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목차>

서문
머리말: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
1부. 내적 관찰
1장. 개인적 절망의 사회적 배경
2장. 치유력을 선사하는 관계의 힘
3장. 후기 자본주의와 치료
4장. 이기적인 사회: 현재 상태
5장. 갈라진 뇌, 갈라진 세상
2부. 외적 관찰
6장. 타고난 사람들: 상처 받은 리더들, 기숙학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7장. 살인: 전쟁터와 사회에서 살인을 배운 사람들, 그 심리적 대가
8장. 엉킨 그물: 인터넷 포르노, 성 중독, 썩어버린 애착관계
9장. 병적 단체가 되어버린 기업
10장. 100년이 넘는 심리치료의 역사, 그러나 세상은 악화일로로

<저자 소개>

로더릭 트위디(Roderick Tweedy)는 출판사 카낙 북스(Karnac Books)의 편집자로 창의력과 좌뇌, 우뇌의 기능분리, 대중문화, 낭만주의 등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The God of the Left Hemisphere: Blake, Bolte Taylor and the Myth of Creation』가 있다.

제목: THE WOMEN WITH SILVER WINGS
가제: 은빛 날개를 달았던 여성들
저자: Katherine Sharp Landdeck
출판사: Crown (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장르: 역사

*** 수십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영화사 *Fox 2000,* 오스카 상을 수상한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프로듀서 마이클 슈거*(Michael Sugar)* 영화 제작 확정**

버젓이 일어난 일인데 불과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잊혀지고 가려져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묻혀 있다가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진실은 늘 우리에게 놀라움과 허구의 이야기가 주지 못하는 감동을 안겨 준다. 특히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드러난 사실보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벌어진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처참한 당시의 상황과 고통이 더 생생하게 담긴 경우가 많다. 제2차대전이 발발한 당시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고 전장에 나선 여성 공군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끈끈한 전우애와 애국심으로 '여성 공군조종사'로 불리며 미군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 되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함께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처럼 참전군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그 뜨거웠던 열정과 노력은 없었던 일처럼 가라앉고 말았다. 그렇게 수십 년간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기 위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고 2009년이 되어서야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여군들의 공헌이 마침내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회가 선사하는 금메달도, 정식 베테랑의 지위도 그제야 주어졌다. 미국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특히 항공술, 전쟁 역사를 주로 연구해온 저자는 이 특별한 여성들의 엄청난 용기와 국가로부터 업적을 인정 받기까지 이들이 벌인 힘겨운 싸움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실화가 주는 감동, 숱한 고난과 비난에도 꿋꿋이 자기 몫을 해내려고 노력했던 여성 공군 조종사들의 놀라운 용기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운영된 '여성 공군조종사' 부대는 77종의 전투기로 6,00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비행하면서 미 공군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됐다. 미군에 새로운 역사를 쓴 이 용감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고 90명만 생존한 상황에서, 저자는 이들이 처음 비행술이라는 여성들에게 낯선 영역에 심취하게 된 배경부터 전쟁에 투입된 과정과 훈련,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삶을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이들의 영웅적인 발자취를 따라간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항공술의 황금기'라 불렸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어난 항공술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 공군 조종사의 필요성을 깨달은 몇몇 선구적 인물들이 추진한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2부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공군으로 활약한 2차 대전 당시의 상황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다. 고된 상황에서 더욱 끈끈한 전우애를 발휘한 여성 공군 조종사들의 활약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3부는 1944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정부가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 시기의 일들을 다룬다.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짙은 차별로 인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에 억지로 전념해야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마지막 4부는 이후 여성 공군 조종사들이 마침내 전쟁에서의 업적을 인정 받고 1970년대부터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의 표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위해 활약한 멋진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풍성한 참고 자료, 역사 기록, 철저한 검증과 실존 인물들과의 인터뷰가 가득한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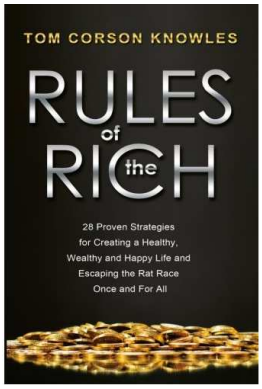
<목차>

1부
1장. 항공술의 황금기에 자란 소녀들
2장. 전면전이라는 벼랑
3장. 절박함에서 나온 아이디어
2부.
4장. 실험이 시작되다
5장. 군인처럼 하늘을 나는 법
6장. 세계 최우수 여성 파일럿으로 향하는 문
3부.
7장.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존재: 실험은 끝났다
8장. 피피넬라의 주문
9장. 남편, 칵테일, 직업
4부.
10장. 숙적, 그리고 새로운 동맹
11장. 워싱턴으로 온 할머니들
12장. 마지막 비행
결론 / 맺음말

<저자 소개>

캐서린 샤프 랜덱(Katherine Sharp Landdeck)은 테네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텍사스 여성대학교에서 21세기 미국사와 전 세계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화 <Silver Wings, Flying Dreams>에 프로듀서, 역사가로 참여하여 에미상(Emmy Award) 후보에 올랐으며 PBS에서 만든 에미상 수상작 <High Hopes>, 그레이시 상(Gracie Award) 수상작 <We Served Too> 제작에도 참여했다.

제목 : RULES OF THE RICH
가제 : 부자가 되는 규칙
저자 : Tom Corson- Knowles
출판사: TCK Publishing
발행일: 2014년 1월 9일
분량 : 136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투자



*** 건강하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고 끝 없는 돈 벌기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스물여덟 가지 전략**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70 퍼센트 이상이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지금 바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거나, 주식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자주 거론되지만, 저자는 모두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단언한다. 바로 '두려움'이다. 하고 싶은 말을 선뜻 입밖에 내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의지를 주춤하게 하는 똑같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혹시나' 손해를 볼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부터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려면 불명확한 두려움 속에서 꿈만 꾸며 아쉬워하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차고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파는 것으로 개인 사업가로 첫 발을 디디고 대학 시절 기숙사에 살면서 사업을 운영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을 하러 직장에 다니고, 사업에 필요한 큰 돈을 모으기 위해 수십 년간 저축하고 아껴 쓰는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물여덟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단 3년, 길어야 5년 정도 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방법,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성공하는 비법이 소개된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은 예전처럼 착실히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모두의 꿈을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다. 실제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악순환에 갇혀 일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파산, 빈곤이라는 정반대의 결과와 마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95 퍼센트 이상이 은퇴 이후 안정적으로 살아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가족들의 도움, 자선단체의 도움에 기대야 할 형편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성공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자금을 모우기는 힘든 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만 대부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종자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사업 기반을 쌓으려면 투자자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과 달리, 단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터

넷을 적극 활용하여, 예전처럼 먼저 물건부터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을 뒤집어서 먼저 상품을 판매하고, 그렇게 미리 확보한 돈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홀푸드, 아마존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처음에는 부엌이나 차고에서 시작했고, 처음 사업을 시작한 당시 자본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수준이었다. 열정과 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든든한 자본금보다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데 훨씬 더 중요하고, 사업 준비 단계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업이라는 영역을 아주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창업 비결과 수백만 명의 성공한 사업가들, 인물들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된 성공의 열쇠를 이 책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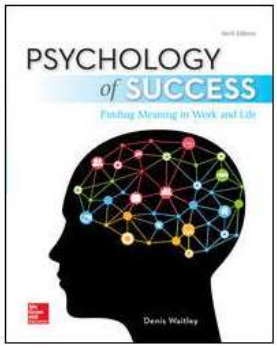
<목차>

이 책을 쓴 이유
머리말. 모든 건 관점에 달려 있다!
1장.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다
2장. 성장하느냐, 죽느냐!
3장. 가라데가 되게 할 것이냐, 안 되게 할 것이냐
4장. 인식이 열쇠다
5장. 스스로에게 "예스!"라고 말하라!
6장. 자신이 갈 직장은 스스로 만들어라
7장. 시작의 마법
8장. 규율이라는 불편한 세계
9장. 경제적 독립성,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
10장. 세상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11장. 먼저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라
12장. 새로운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회
(이하 생략, 총 28장,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탐 콜슨 놀리스(Tom Corson- Knowles)는 기업가이자 블로거,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열세 살 때 SAD 램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인디애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무료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 EbookPublishingSchool.com와 전자책,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 TCK Publishi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저서로는 『The Book Marketing Bible』, 『The Kindle Publishing Bible』, 『Secrets of the Six- Figure Author』, 『Rules of the Rich』, 『Facebook For Business Owners』, 『The Kindle Writing Bible』, 등이 있다.

제목 : PSYCHOLOGY OF SUCCESS
가제 : 성공의 심리학
저자 : Denis Waitley
출판사: McGraw- Hill Higher Education
발행일: 2016년 (제 6판)
분량 : 407 페이지
장르 : 심리학



*** 나이, 전공,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적 원칙**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고 생의 즐거움을 오롯이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머물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는 일은 좌절과 아쉬움, 한계를 느끼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목표가 손에 잡히지 않는 꿈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적, 환경적인 준비단계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준비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그 목표를 추구하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심리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기 부여, 개개인의 성과 개선 방안을 조언하고 이끄는 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저자는 이 책에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심리학적 원칙을 설명한다. 사람마다 성격도 목표도 꿈도 모두 다른 만큼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전략을 모두가 똑같이 따라 하는 원칙 대신 자신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고 변형해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 소개된다.

이 책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성공의 심리학은 꿈과 가치, 흥미, 기술, 정체성, 자존감, 대인관계를 스스로 올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기 인식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다. 이러한 사고가 든든한 밑거름이 될 때 성공이라는 개인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책은 먼저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고 목표가 뿌연 안개에 덮여 있는 대신 명확하고 확실한 형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의 역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동기부여, 자기 훈련의 원칙을 소개한다.

각 장에는 좌절과 갖가지 문제에 붙들려 있다가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마침내 성공을 일구어낸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소개되어 이미 잘 알고 있는 원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장의 첫 부분에는 다루어질 주제를 미리 요약해서 제시하고 그 주제에 맞는 기술, 정보가 함께 나와 있어서 향후 복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또한 문화, 신체 이미지, 충동 조절, 노화를 대하는 자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 고민하는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하면서 이 책에 소개된

원리의 또 다른 응용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각 장에는 새롭게 습득한 심리적 원칙을 스스로 시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자율적인 평가의 기회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머리말
1장. 심리와 성공
2장. 자기인식
3장. 목표와 장애물
4장. 자존감
5장. 긍정적인 사고
6장. 자기훈련
7장. 스스로 일깨우는 동기
8장. 자원의 관리
9장. 의사소통, 대인관계
더 읽을 거리

<저자 소개>

데니스 웨이틀리(Denis Waitley)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성과 개선, 잠재력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이자 강연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우수한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저서 『The Psychology of Winning』을 비롯해 『Seeds of Greatness』, 『The Winner's Edge』, 『Being the Best』, 『Empires of the Mind』 등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산하 스포츠약물협회에서 심리학 분과 의장을 역임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기량 향상 분야에서도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